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감리교회가 환경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교회학교가 주관하는 녹색장터가 열립니다.

교회학교 부장회의는 녹색장터에서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연회가 주최하는 자전거타기 행사가 9일(월) 오전 10시부터 5호선 여의나루역 앞 한강 둔치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학기 화요성서학당 '신앙 다지기'가 이번 주 화요일에 종강합니다.

다음 주일(15일)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올해 상반기 새교우 환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동제일교회 여선교회 영성수련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박병구/김정애 님의 차녀 상희 씨가 김승식 씨와 결혼합니다.

때 - 6월 14일(토) 오후 1시

곳 - 합정동 규수당 웨딩홀(6층 루비홀)

가급적이면 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향적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생명의 하나님, 온갖 자연만물들이 저마다의 빛깔로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도 온전한 우리만의 빛깔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마음은 탐욕과 거짓으로 물들어있습니다. 그 검은 물결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낙비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맑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사회가 연일 슬렁거리고 있습니다. 대화와 소통이 막히고 무시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열린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주십시오. 서로를 도구화하고 욕망충족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나와 너뿐 아니라 자연만물 모두가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장민숙 박시내 장영숙 윤정덕 구성실 윤석철 장혜숙 강인식 김정숙
 김근중 정옥영 김용진 박효선 김일량 이은옥 김중수 이순정 김희진
 박홍재 박애순 배근수 김금순 백묘현 오진훈 노순옥 윤미경 윤영원
 이선희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조병주 정한구 정미경 박지인 장원호
 박성희 권미숙 권아주 김재흥 최희영 왕성환 강순배

월정헌금:

권미정 박석희 조항미 서정순 유증희 이재문 이인웅 윤성종 김윤정
 전영규 김경수 하정석 이명희 이소순 김현영 정원석

감사헌금:

김성한 조영순 김훈동 유경순 유영남 김용진 박효선 이광섭 김수연
 구자훈 김혜란 이현순 이재문 이증자 한지혜 김준호 광경선 배근수
 김금순 이규일 김미희 이인섭 이인웅 고숙이 광상언 김은숙 가족
 오래된 미래 무명6

생일감사헌금: 배삼순 허성호 안종일 정현주 권혁순

100주년헌금: 이증자(헌금 누계: 208,580,000원)

	장혜숙	장혜숙	심	장혜숙
	노순옥	정경례	심	김영한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이재문
	문영혜	박경선	이명희	김진경
	안정숙	박애순	안정숙	조병주
	박홍재	곽권희	심	김순복
	박효선	허정윤	심	허정윤
	최숙화	권미정	심	권미정
	이순정	김금순	심	김금순
	이형숙	권미숙	권미숙	이형숙
	안홍숙	오현정	심	안홍숙
	백혜숙	정옥영	야외	정옥영
	송양진	유경순	송양진	김수진
	이영란	박미영	야외	방극숙
	박혜경	최영혜	심	박혜경

감리교 환경지킴이 수칙

하나님의 몸과도 같은 자연환경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환경파괴는 급기야 창조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지구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감리교회는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실천한다.

첫째, 우리는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한다.

둘째, 우리는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한다.

셋째, 우리는 유기농산물로 생명밥상을 차리고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넷째, 우리는 물을 아끼고 받아쓰며 반드시 재사용한다.

다섯째, 우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과 전열기기를 사용하고 실내 적정온도(여름/24-28도, 겨울/18-22도)를 준수한다.

여섯째, 우리는 계획구매하고 장바구니를 사용한다.

일곱째, 우리는 빨래는 모아서 하고 천연세제를 사용한다.

여덟째, 우리는 재사용, 재활용하고 중고품 이용을 생활화한다.

아홉째, 우리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열번째,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주변을 깨끗이 한다.

담당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제 아무리 어둡다해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불 밝히며 사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에 또 하나의 어두움을 더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 다른 이의 목에 멍에를 메우는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또한 스스로 하나님 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 맥잡기/김기석 목사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기도/김근중 권사	기도/정영선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김민주 선생 방문성 장로	인도자 김금순 집사

6월	영접위원	한상익 박창운 박석희 허정윤 김금순 조항미
	헌금위원	방문성 장혜숙(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2008 감리교 환경 선언

우리는 지난 해 12월 7일에 발생한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하여 지구 생태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였다. 이 사고를 통해 생태적으로 회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생태계 복원과 주민 피해보상에 힘썼고 향후 생태 보고서, 생태 사료관 건립, 생태마을 조성에도 힘쓸 것이다.

지구환경문제는 환경재앙을 통해 지구 종말도 가능하다는 과학자들의 보고가 속속히 나오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실제 우리 당대에 지구가 멸망하여 그 화려했던 신생대가 종말을 고할 수도 있다는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지난 해 11월, 유엔환경계획에서 발표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물 대멸종에 대한 지구환경보고서는 인류의 삶을 생태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음을 고백하고 지구 생태계가 하나님의 몸으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한다.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행위요, 신성모독 행위이다. 우리는 피조물을 잘 돌볼 책임을 부여 받은 청지기로 환경을 보전하는 일이 최초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일임을 믿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환경에 관심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에 동조하였다. 우리는 수 십 년 동안 발전과 개발 앞에 속수무책으로 피해쳐지고 더럽혀진 삼천리 금수강산을 잘 보전하고 돌볼 책임이 있음을 자각한다. 대규모의 개발 사업은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지구 환경재앙을 초래하여 인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터전을 빼앗는 일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국민여론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화합과 창조질서보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재고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아울러 유전자조작식품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 생명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에 우리 감리교회는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1. 우리는 지구생태계가 하나님의 몸임을 믿고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일

이 시대적 사명임을 믿으며 성심으로 환경선교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2. 우리는 지구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중심주의와 물질주의가 우리의 무지와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회개하고 창조질서보전을 위해 절제하고 자족하며 청빈과 순명으로 영성적 삶을 추구한다.

3. 우리는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를 통해 생태적 회심을 요청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민피해보상과 생태계 복원에 힘쓰고 창조질서 보전의 청지기로 나설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무분별한 국토개발, 골프장 건설, 갯벌 매립,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며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잘못된 세계화에 반대한다.

5. 우리는 생명과 평화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단순하고 소박하게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순례자로 살 것을 다짐한다.

2008년 6월 8일 감리교 환경선교위원회

하나님/나무가 바람에 부딪치며 소리를 냅니다
나무가 말하는 소리입니다
단지 바람이 불어 서로 부딪치는 소리일까요
이제는 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이는
마음을 주십시오
있을 자리를 잃어 가고 항변조차 할 수 없는
물 같은 존재지만
저들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미로운 나무 향기로
깨끗한 흔들림으로
바람에 잎을 뒤집으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귀 기울이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금 창문을 열고. (김정미, <나무의 기도>)